POSTING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소식지

2020. 06.

Vol.6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중부권역 | 동구 - 배다리헌책방거리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POSTING

발행일	2020. 06.
발행호	Vol.6
발행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편집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행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http://www.ippi.or.kr
전화	032-580-6392
디자인 및 제작	032디자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0. 06. Vol.6

CONTENT

4 ..... **보건사업 Brief**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 동구 치매안심센터

6 ..... **Focus on 인천**
인천광역시 치매 주요 현황

10 ..... **공공보건의료 Alive**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정성우 센터장 인터뷰

12 ..... **특집**
인천광역시 코로나-19 현황

13 ..... **지원단 주요일정**
추진성과·향후계획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

동구 치매안심센터

글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 김영임 팀장

지역사회 돌봄 관점으로 치매를 관리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치매국가책임제는 고령자와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복지정책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 허브기관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 1:1 상담과 검진, 치매쉼터 및 가족카페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흐름에 따라 동구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개소 이후 지역 내 치매환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 및 관리** 695명(2019년 추정 치매환자 1,372명) / **상담, 검진 등 서비스 이용** 4,705명(2019년 12월 말 기준)

동구 치매안심센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치매조기검진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름다운 기억을 보다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인지저하로 분류되면 신경심리검사 및 정밀검사를 진행하여 치매 환자 등록 및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센터에 내소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재래시장, 노인복지관, 종교시설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조기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종예방사업

치매 어르신의 실종사고 예방과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위치추적장치가 탑재된 배회감지기를 무상 지원한다. 안심지역을 이탈하는 경우 가족의 스마트폰에 알람을 전송해 실종사고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여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외에도 의류에 부착이 가능한 '배회가능 어르신 안식표'를 무료로 발급하고, 중부경찰서와 연계하여 '지문 사전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 치료 관리비지원

동구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치매진단 후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약제비 및 진료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기저귀, 방수매트, 복약 달력 등)을 최대 1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다.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맞춤형 사례관리는 독거 치매, 부부 치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일상생활관리, 건강관리, 건강 상담, 공공 및 민간서비스 연계, 인지프로그램 제공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맞춤형 사례관리 사례

82세 여성인 A 어르신(독거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은 거동은 가능하나 인지기능 저하로 규칙적인 식사와 복약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치매로 인한 불안과 망상이 매우 심한 상황이었다.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상담 결과,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였다. 이에 성언의 집 요양센터와 연계하여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고 식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기억나누미 사업'과 연계하여 복약관리 및 말벗 서비스 자원봉사지원을 제공하였다. 이후 어르신의 불안과 망상 증상이 점차 완화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쉼터·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와 고위험군 치매예방을 위해 로봇기술을 활용한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로봇, 실벗과 함께하는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통해 참여자의 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며 퀴즈와 퍼즐, 노래교실 등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계획이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선발된 공공후견인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관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기 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중증치매환자 1인당 관리 비용은 연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치매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중증치매환자의 35%가 약 5년 정도까지 증상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그만큼 경제적 부담도 적어질 수 있다.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하며, 환자 및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치매는 두려운 질병이지만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은 아니다. 어르신들이 치매로 인한 걱정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

기억생생교실

사전지문등록제도

기억청춘교실

맞춤형 사례관리

인지강화교실 수료식

인천광역시 치매 주요 현황[1]

2018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38만 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 수는 75만 488명으로 추정되며, 치매 유병율은 약 10%로 이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인구 10만 명 당 12명(전체 사망원인 순위 9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처음으로 국내 사망원인 10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기한 없는 치료와 간병이 요구되는 치매환자 돌봄이 가족단위 위주로 관리될 경우 가족들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고 가족 갈등을 넘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경제적 부담 등은 존속살해, 자살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질환으로 인지한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첫째,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및 가족지원 등 1:1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치매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 치매 환자에게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건강보험을 90%까지 지원하고, 신경인지검사와 MRI 등 치매관련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셋째, 경증치매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고,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2018년 하반기부터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치매전담형 시설과 안심병원 확충, 치매에 대한 근본적 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약 2,000억 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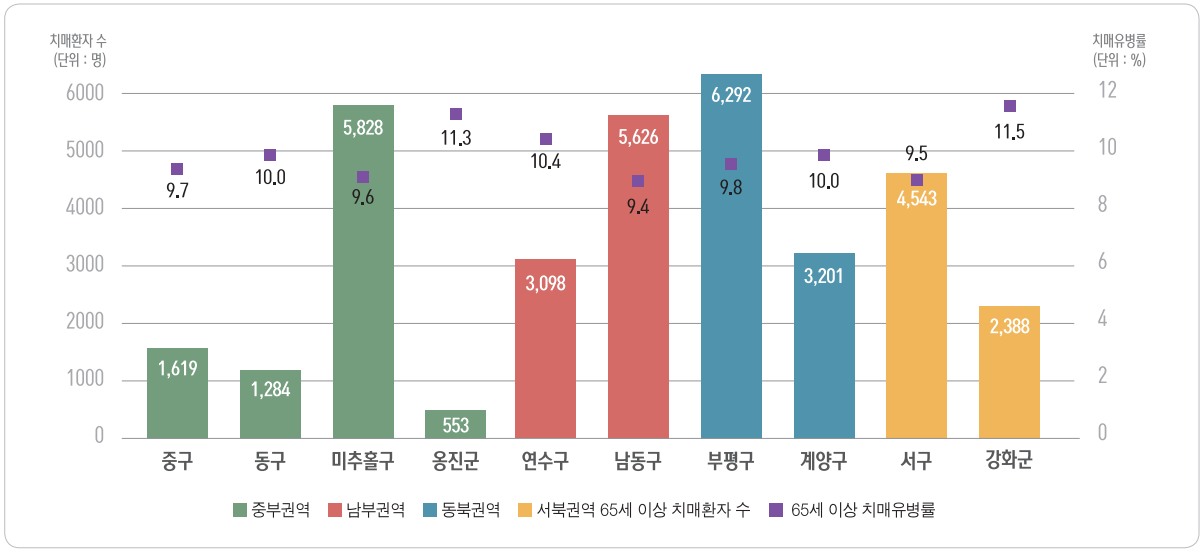


그림1. 인천광역시 치매환자 수 및 추정 치매 유병률

1 본 원고는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를 참고하여 작성함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치매 정책 동향 속에서 인천광역시의 치매환자 현황과 자원 현황, 의료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치매환자 현황

2018년 인천광역시의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34,429명, 추정 치매 유병률은 9.8%입니다. 권역별 치매환자 수는 중부권(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9,284명, 남부권(연수구, 남동구) 8,724명, 동북권(부평구, 계양구) 9,493명, 서북권(서구, 강화군) 6,9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군·구별 추정 치매 유병률을 살펴보면 동구(10%), 옹진군(11.3%), 연수구(10.4%), 계양구(10%), 강화군(11.5%)에서 평균 9.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림1).

인천광역시 치매자원 기관 현황

지역사회 내 대표적인 치매자원 기관으로는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요양병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동 시행규칙 제 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근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당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인천광역시가 2013년 가천대 길병원을 위탁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2019년까지 위탁운영하였고, 2020년부터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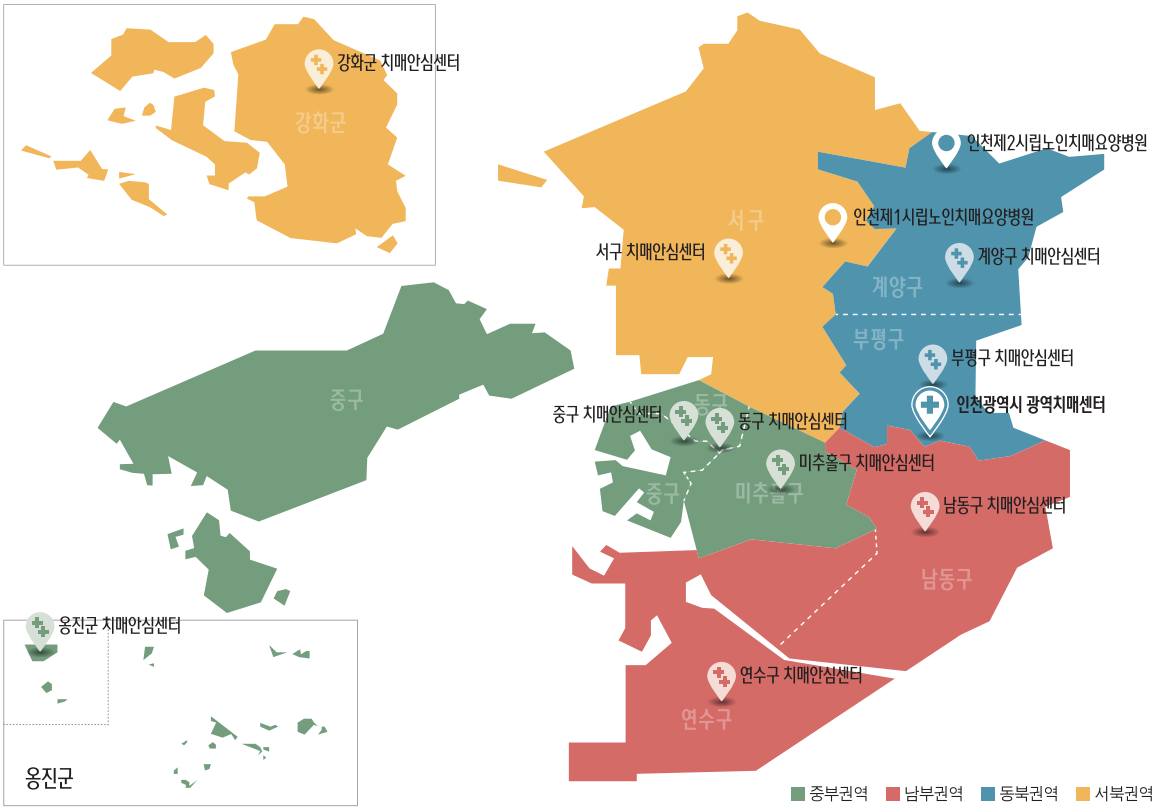


그림2. 인천광역시 치매사업 관련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9월 보건복지부 장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이후 2018년 개정된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설치·운영 중이며, 2020년 기준으로 인천시는 10개 모든 군·구에 한 개소씩 설치·운영 되고 있습니다.

국내 요양병원은 1994년 7월 8일 의료법 개정으로 '요양병원'이란 규정이 신설되었고, '만성질환자 등 장기요양환자에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정부는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지침을 발표하고 '치매요양병원'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설립주체에 따라 공립요양병원과 민간요양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립요양병원은 정부 및 지자체, 민간요양병원은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20년 기준 총 72개의 요양병원이 개설되어 운영 중이며 이중 공립요양병원이 2개, 민간요양병원이 70개로 민간요양병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요양병원 수는 중부권(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27개, 동북권(부평구, 계양구) 25개, 서북권(서구, 강화군) 13개, 남부권(연수구, 남동구) 5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군·구별로 살펴보면 동구와 연수구에는 민간요양병원이 없는 반면에, 계양구에는 17개 병원이 운영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립요양병원인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2002년에 개원하여 운영 중이며 서구 심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2009년에 개원하였으며 계양구 갈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치매환자 1천명 당 요양병원 수는 2.1개로 전국 평균과 같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역 및 군·구별로 살펴보면 남부권역 2.3개, 계양구 3.4개로 가장 많았고 지역 간 격차는 권역 0.3개, 군·구 3.4개로 군·구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2018년 인천광역시 요양병원 개설 현황

(단위: 명, 개소)

구분		65세 이상 추정치매환자 수	요양병원 수			치매환자 1천명 당 요양병원수	
			합계	민간 요양병원수	공립 요양병원수	권역별	군구별
전국		750,488	1,560	1,481	79	-	2.1
인천광역시		34,429	72	70	2	-	2.1
중부권역	중구	1,619	4	4	-	2.0	2.5
	동구	1,284	0	0	-		0
	미추홀구	5,828	15	15	-		2.6
	옹진군	553	0	0	-		0
남부권역	연수구	3,098	3	3	-	2.3	1
	남동구	5,626	17	17	-		3
동북권역	부평구	6,292	8	8	-	2.0	1.3
	계양구	3,201	11	10	1		3.4
서북권역	서구	4,543	9	8	1	2.0	2
	강화군	2,388	5	5	-		2.1

치매상병자의 의료이용 현황

인천광역시 치매상병자의 의료기관종별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 이용자가 29,903명으로 가장 많고, 한방병원 이용자가 293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용자 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병원, 보건기관, 한방병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2. 인천광역시 치매상병자의 의료기관종별 의료이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의료기관종별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기관	한방병원
인천	7,327(10.7%)	16,781(24.5%)	5,137(7.5%)	8,550(12.5%)	29,903(43.6%)	626(0.9%)	293(0.4%)

군·구별로 살펴보면 옹진군은 의원보다 종합병원 이용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동구와 부평구, 계양구는 다른 군·구와 달리 한방병원 보다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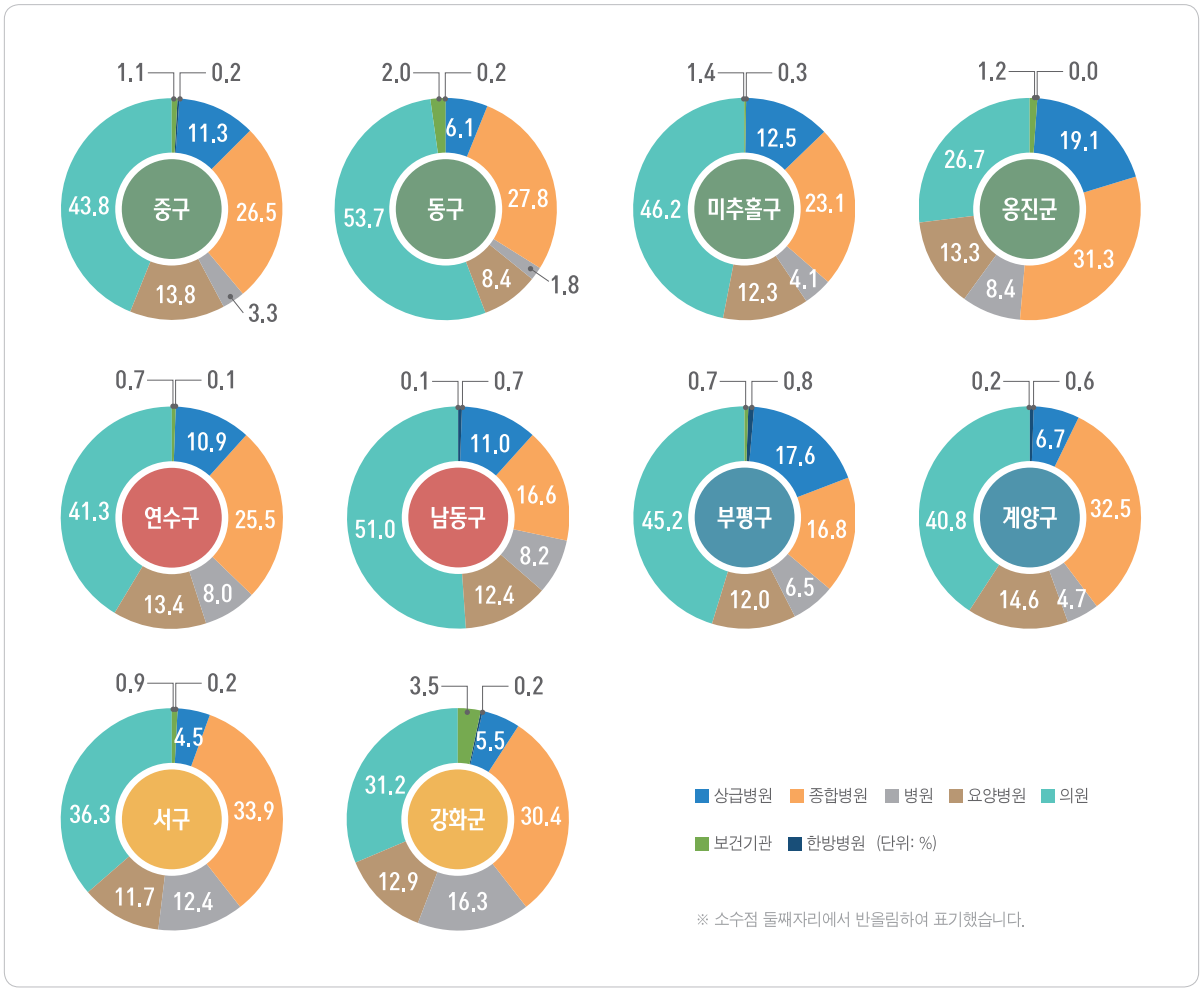


그림3. 인천광역시 군·구별 치매상병자의 의료기관 종별 의료이용 현황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정성우 센터장 인터뷰

+

인천 공공보건의료 지원기관 알리기

본 코너에서는 인천시민의 치매극복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를 소개합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에 대한 간략한 기관 소개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2013년 설치되어 '치매 걱정 없는 뇌 건강 도시 인천'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치매 관리와 연구,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두뇌톡톡!뇌건강학교'를 함께 운영하면서 인천지역 내 치매관리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치매전문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가치매관리사업을 보급·운영하고 인천시 10개 군·구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치매관리 인프라 연계, 치매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기술지원, 치매 전문 교육, 치매 관련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며, 치매 환자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인천성모병원에서 광역치매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도별 고령화 예상 증감률은 전국에서 2위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매유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치매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국내 최초 뇌질환 전문 병원인 인천성모병원 뇌병원은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풍부한 임상경험과 연구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치매 질환 관리에 특화된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하고 빠른 초기 대처와 치료로 환자와 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성모병원 뇌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치매관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휴머니튜드 케어 도입과 치매공공후견사업 등의 중점사업 추진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휴머니튜드 케어는 신체적인 구속과 같은 강제적 케어가 아닌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치매환자를 돌봄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치매 돌봄이 가능하게 합니다. 본 센터는 국내에서 최초로 휴머니튜드를 소개하는 '2019 국제 치매 케어 워크숍'을 개최하고 병원 적용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휴머니튜드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도 일상생활과 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의 권리주체로서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해드리는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인은 치매어르신에게 적합한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기초생활 수급비 등 재산관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체계구축 등의 후견사무를 수행하여 치매어르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본 센터는 공공후견인 선발 및 교육, 피후견인(치매 어르신) 매칭, 공공후견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 선발한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11명과 금년도 선발한 후보자 12명을 포함하여 총 23명의 공공후견인이 치매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 본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 부족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피후견인인 치매환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나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워 후견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상자들이 후견인 지원을 원치 않아 연결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치매 어르신이 후견지원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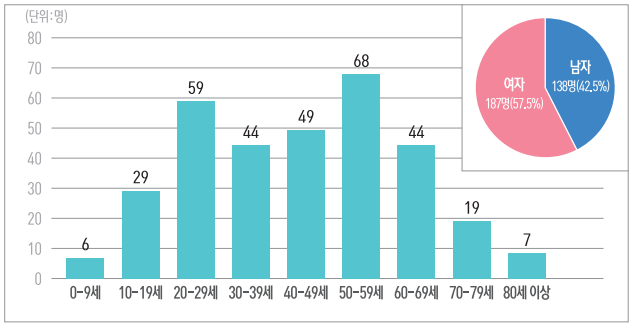
앞으로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의 발전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역치매센터는 지역의 중심 치매기관으로서 광역 단위의 치매관리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치매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군·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돌봄터, 치매주야간보호시설, 치매안심병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치매관리 사업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본 센터의 역할은 보다 확대되었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기관별 역할 정립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대상자별 전문적인 치매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코로나-19 현황[1] (2020.1.20.~2020.6.18.)

인천광역시 확진환자 성별, 연령별 분포

- (성별) 인천시 확진환자 325명 중 여자는 187명(57.5%), 남자는 138명(42.5%)으로 여자가 더 많았음
- (연령별) 인천시 확진환자 325명 중 50대가 68명(20.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20대 59명(18.2%), 40대 49명(15.1%), 30대·60대 각각 44명(13.5%), 10대 29명(8.9%), 70대 19명(5.8%) 등의 순이었음



인천광역시 확진환자 주요 감염경로별 현황

구분	쿠팡물류센터[2]	개척교회	이태원 클럽	해외유입[3]	집단발생 관련[4]	리치웨이	구로구 콜센터	부동산	확진자 접촉	기타[5]	조사 중
확진환자 (명(%))	63(19.4)	57(17.5)	54(16.6)	53(16.3)	21(6.5)	21(6.5)	20(6.2)	12(3.7)	11(3.4)	5(1.5)	8(2.5)

- 전체 확진환자 325명 중 쿠팡물류센터 관련이 63명(19.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다음으로 개척교회 관련 57명(17.5%), 이태원 클럽 관련 54명(16.6%), 해외유입 관련 53명(16.3%), 집단발생 관련(이태원 클럽, 쿠팡물류센터, 개척교회, 구로구 콜센터, 리치웨이, 부동산 제외) 21명(6.2%), 리치웨이 관련 21명(6.5%), 구로구 콜센터 관련 20명(6.2%) 등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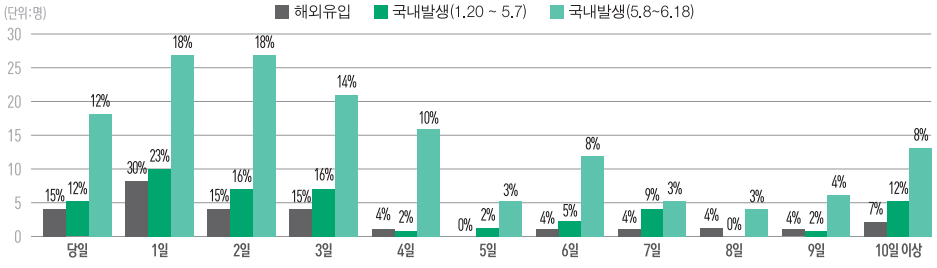
2 지표환자(#인천142) 쿠팡물류센터에서 제외(이태원 클럽 관련으로 포함)

3 해외유입: 미국 16명, 스위스 5명, 영국 4명, 멕시코·아일랜드 각각 3명, 유럽·독일·인도네시아·필리핀·인도·카자흐스탄 각각 2명, 중국·유럽/미국·태국·베트남·팔라우·프랑스·탄자니아·시리아·파키스탄·방글라데시 각각 1명

4 집단발생 관련: 서초구 회사 관련 5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3명, 여의도 건설회사 관련 3명,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 2명, 해양수산부 관련 2명, 서울 은평구 가족 관련 2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 1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관련 1명,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1명, 양천구 탁구장 관련 1명

5 기타: 신천지 관련 2명, 부산 방문 2명, 중국인 접촉 추정 1명, 대구 방문 1명, 경남 창원 방문 1명

인천광역시 확진환자 증상발생일부터 확진일까지 소요일



구분	유증상 확진자(명)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	평균
전체	224	0	25	3	3.8
해외유입	27	0	20	2	3.8
국내발생 (1.20 ~ 5.7) / (5.8 ~ 6.18)	43 / 154	0 / 0	25 / 14	2 / 3	4.2 / 3.7

- 증상이 있는 224명의 증상 발생일부터 확진일까지 평균 소요일 : 3.8일(중간값 : 3일)

1 본 원고는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발간한 인천광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함

추진성과

2019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 지원

인천시와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 **기 간** 2020년 3월 23일(월) ~ 5월 20일(수) ■ **장 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천의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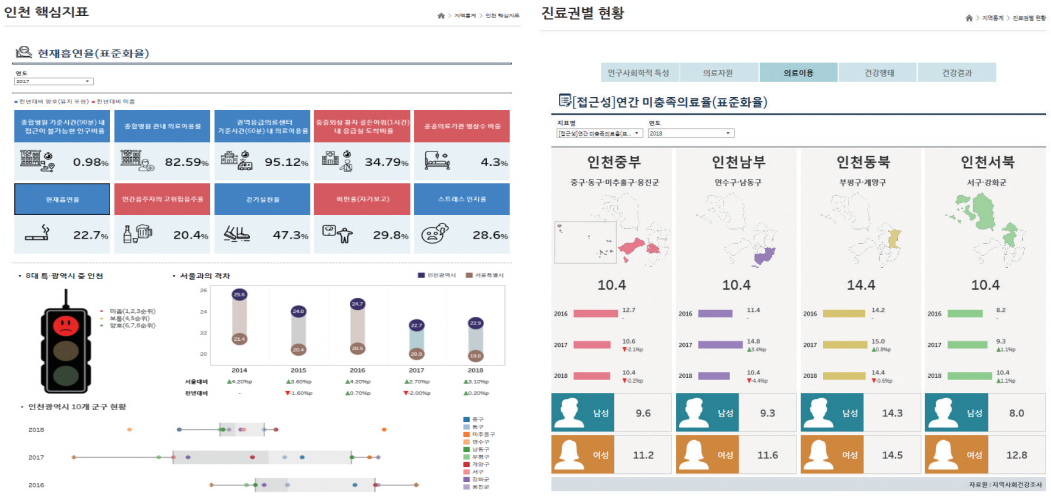
대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의료 워크숍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신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대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 **기 간** 2020년 5월 21일(목) 10:00~15:00 ■ **장 소** 대전 호텔인터시티 4층 라벤더홀

추진성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표 시각화 및 홈페이지 공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표 재검토 연구』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선정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표(5개 영역, 92개 지표)의 시각화 결과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http://www.ippi.or.kr)의 지역통계 게시판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공공의료 INSIGHT 2020년 1호 발간

「공공의료 INSIGHT」 2020년 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기존의 인천·부산·경기·제주 지원단 이외에도 서울 재단 및 강원·경남·전남 지원단이 공공의료 INSIGHT를 공동 발간합니다. 2020년 1호에서는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중증의료를 주제로 전문가 기고, 지역 특집, 필수의료서비스 현황을 다루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향후계획

보건·의료 분야 지원단 및 센터 정례회의

인천시 보건·의료 분야 지원단 및 센터가 모여 기존 공동사업(공동포럼, 연례보고서 제작) 추진과 신규 공동사업 발굴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일 정** 2020년 7월 ~ 8월 중
- **장 소** 미정

공공·민간의료기관 대상 공공의료 표준진료지침 교육

인천 내 공공·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적용 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일 정** 2020년 8월 중
- **장 소** 미정

2020년 제1차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재단 연석회의

2020년 제1차 연석회의는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운영됩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발전 방향과 역할 및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단 연구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 정** 2020년 7월 중
- **장 소** 미정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지원

인천시 10개 군·구 대상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일 정** 2020년 7월 ~ 8월 중
- **장 소** 인천의료원 행정동 3층 회의실

인천광역시 의료기관 실무자 교육 '공공의료기관의 변화와 의료기관 성과관리 지표의 실제'

공공보건의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의료기관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엑셀을 통한 성과관리 지표 실습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일 정** 2020년 8월 중
- **장 소** 인천의료원 지하1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인천 내 의료기관 종사자 중 QI, 감염, 환자안전지표 관련 담당자 등

시민네트워크 간담회

인천시 보건·의료 분야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천시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과제 발굴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일 정** 2020년 7월 ~ 8월 중
- **장 소** 미정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협의체 2·3차 회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의 전략 및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전문가 조사 결과를 고려한 최종 정책방향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협의체 회의 일정 지연)

- **일 정** 2020년 3분기 중
- **장 소** 인천시청

IPPI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